

전주한지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시,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진행 세계기록총회 기록전 참여 조선왕조실록 복본 전시

전주한지에 기록된 전주의 우수한 기록문화가 전 세계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16 세계기록총회(ICA)에 '전주한지로 부활한 조선왕조500년'이라는 주제로 기록전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기록관리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주관하는 '2016 ICA서울총회'는 전 세계 기록전문가(Archivist)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의 효과적인 관리·보존 방안과 세계기록유산의 보호 및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로, 4년마다 개최돼 '기록관리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ICA총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기관 산업전'에 참여해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전주전통 한지에 원본 그대로 복원한 복본(複本) 600여권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록 표지의 전통문양인 능화문(菱花文)의 동판인쇄체형과 전통한지뜨기 체험 행사도 진행, 이번 총회에 참석한 190여개 회원국 2,000여명에게 전주의 기록문화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6일 '기록, 조화와 우애'를 주제로 막이 오른 이번 세계기록총회의 개막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문식 행정자치부장관,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오영



세계기록관리올림픽으로 불리는 '2016 ICA서울총회'가 6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이 '전주한지로 부활한 조선왕조500년'을 주제로 한 전주 전시관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전통한지에 원본 그대로 복원한 복본(複本)과 원판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 행정위원장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김석란 완관문화재단장 등 전주시 대표단, 존 호킹(John Hocking) UN사무처장과 프랭크 라 루(Frank La Rue)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데이비드 프리커(David Fricker) ICA의장 등 유네스코 관계자 및 전 세계에서 모인 기록전문가들이 참석해 성대한 총회 개막을 축하했다. 시는 이번 '2016 세계기록총회'에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중한 전주기록자산으로 보전·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주는 과거 각종 전란 중에도 전주사고를 잘 보존한 것은 물론, 조선시대 출판문화의 대표격인 완관본,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및 포쇄 재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도시로 손꼽혀왔다. 또한 시는 현재 전주관련 각종 인문학적 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을 융합한 '키키비움' 형태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전주정신의 숲' 조성, 전통한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라감영에서 간행되었던 완관본 서적 70여권에 대한 복본화 사업도 추진해나가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됐던 전주사고가 자리한 전주는 우리나라 기록·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완관본의 명맥이 이어지는 도시"라며 "이러한 기록문화의 전통성을 세계기록총회를 통해 널리 알려 전주가 기록한류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다올마당, 국민통합우수사례 '최우수상'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합리적인 소통기구 역할 인정

전주시가 국민통합위원회 주관 국민통합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주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다올마당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통합우수사례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역별 국민통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국민통합 모범사례를 정립해 국가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 올해 네 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6월 실시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발표대회에서 '전주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다올마당 운영' 사례를 발표, 높은 점수를 얻어 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올마당은 전주시 주요 현안이나 중시 사항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마련한 일종의 회의기구로, 현재 전주시에는 총 21개의 다올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 다올마당은 시정 전반에 걸쳐 보다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인 소통기구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올마당은 민선6기 전주시 거버넌스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자봉센터,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이·미용과 풍선아트 등 5개 분야 150여명의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 분야는 헤어컷트 봉사자 양성을 위한 이·미용 교육 △풍선아트 아이들이 즐거움을 줄 풍선아트 교

육 △간단한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생활공예 교육 △심신의 피로를 없애는 발마사지 교육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자아형성을 안겨 줄 동화구연 교육 등 5개 과목이다. 이번 교육에는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본인 재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 및 문의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전화(063-280-4016)와 이메일(jonjuvs@korea.kr), Fax(063-278-7490)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김치와 함께하는 슬로시티 전주 여행

시, 다음달 '한옥마을 김치여행' 운영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슬로푸드와 대명사인 전주김치를 맛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김치를 활용한 음식 관광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김치 전문가의 손맛 강좌 등 전주김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2016한옥마을 김치여행'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한국음식문화협회(회장 유유순)가 주관하는 한옥마을김치여행은 △K-Food 전주김치 전문 교육 △한

옥마을 김치체험여행 △전문가 특색 전시인 '전주김치 때깔 좀 보쇼' 등으로 기획됐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등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K-Food 전주김치' 교육은 발효식품과 건강, 올바른 김치식재료 선별법 등 이론교육과 함께 김치전문가들의 손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전주김치 전문 교육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0일자

지 수강생을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는 1강좌에 1만원, 10회 전체수강시에는 5만원이다. 또한 한옥마을 김치체험여행은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21일과 22일 이틀간 한옥마을을 찾은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김치를 맛보고 만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된다. '전주김치 때깔 좀 보쇼'는 전문가와 K-Food 전주김치 강좌를 청취한 교육생이 10여종의 김치를 담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주비빔밥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차량 흠쳐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무면허로 차량을 흠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특수절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3일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흠친 뒤 익산시 영등동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확대

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주시가 장애인이 살기 좋고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동·수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주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요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역 수리업체를 2개소를 선정해 이달부터 수리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그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으로 운영돼 연간 53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수리비 지원을 받아 왔었다. 시는 상반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전주시 2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까지, 그밖의 등록장애인은 연간 10만 원까지 수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장애인 셔틀버스와 골목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재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